

제 3 교시

논술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1. <보기>에 나타난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조건>에 따라 논변하시오. (900~1200자, 40점)

- <조건>
1.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입장을 반박할 것.

2. 자료를 모두 논거로 활용할 것.

3. 자료를 활용할 때 ‘자료 ①’, ‘자료 ②’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보기>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큰 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해 작은 규모에서 불가능했던 새로운 통찰이나 가치를 찾아내고 이 과정에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은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과 의약품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개인의 의료 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 <자료>
- ① 몇 년 전 구글의 연구원은 『네이처』에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의 내용은 구글이 겨울철 미국에서 독감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국적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유행할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구글이 사용한 방법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을 살피는 것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 보내는 검색 질문은 매일 30억 개 이상이었으므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충분했다.

②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외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위생적인 음식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 정보 서비스 업체와 협력하여 음식점 이용 후기 데이터를 위생 점검 데이터와 연계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각 음식점에 대한 위생 평가 점수를 만들어 고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람들은 관련 홈페이지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음식점이 더 위생적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③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매우 인상적인 사회를 그려 낸다. 이 사회에서는 세 명의 예언자가 범죄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그가 장래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한다.

- ④ 혁신적인 과학기술은 때로 새로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과학자가 본래부터 새로운 산업혁명을 의도하고 과학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제4차 산업혁명 역시 과학자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⑤ 미국의 유통업체 ‘타깃’은 고객들의 구매 패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고객들에게 유용한 맞춤형 광고 전단지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타깃’은 10대 여학생의 구매 패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아기 용품 쿠폰이 첨부된 광고 전단지를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 ⑥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 의해 지득되거나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개인의 내밀한 영역 내에 유보되어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2. <사례>에 나타난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건>에 따라 제시하시오. (1300~1600자, 60점)

—<조건>—

1. 제시문 (가), (나), (다) 모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
2.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것.

—<사례>—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화의 파급 효과는 21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문제 되기 시작했으며, 인구 구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이 점차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고령 인구의 비율 증가에 따른 보수화 경향이 짙어지는 가운데,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사회복지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재원이 축소되어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서도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의 투입에서 고령 인구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강화를 우선할 것인지,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 및 실업 대책에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제시문>—

(가) 가장 대표적인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으로 다수결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수결의 정당성을 위한 전제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다수결로 결정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문적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의 다수결이 정당하지 않다. 다른 하나는 다수와 소수가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결의 한계로는 소수자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결정일 것, 즉 다수와 소수가 합의한 공동의 기초, 근본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결이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가 되어 소수자들의 극단적 저항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정당성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세대 간의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다. 후속 세대가 선행 세대로부터 과중한 부담을 떠안은 경우는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세대 간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선행 세대로부터 받아야 할 적정한 몫과 후속 세대를 위해 이행해야 할 본분과 관련해서 합당한 원칙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마치 같은 세대의 사람들처럼 서로에 대해 책무를 지게 된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까지도 가상적인 협상 주체로 고려하여 정의로운 저축 원칙에 도달할 것이다. 물론 정의로운 저축의 비율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빈곤한 사회라면 높은 저축률이 필요한데도 저축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부유한 사회라면 더 높은 저축률이 기대된다.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 근접하고 시민의 권리가 충실하게 실현된다면 요구되는 저축은 영(零)에 가깝게 될 것이다.

(다) 청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세대 간 불평등’에서 찾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청년 문제의 사회 구조적 측면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본래 세대 간 갈등은 히피문화, X세대, Y세대와 같은 청년 문화와 기성 문화의 충돌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그런데 사회 문화적인 범주에 속하는 세대 간 갈등 개념을 경제적 범주로 끌어들이며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사회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청년 세대에 속한다고 해서 다 가난한 것도, 장년 세대에 속한다고 해서 다 부유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보다는 오히려 부의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의 분량 미달과 분량 초과는 같은 기준으로 감점됩니다.